공연·미술 한곳에서…나주혁신도시에 '예술인마을'

문화예술 지식산업센터 '게토333' 설립… 5월26일 오픈 예정
'음악·목공·공방·순수미술인의 거리' 테마…교육센터 운영도

'공연·미술·공예 등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인 마을로 놀러오세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 나주시 빛가람동에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해왔으며 올해 2월 기준 혁신도시 인구는 3만9200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빛가람혁신도시에는 지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컸다.

최근 이곳에 파주 '헤이리 마을', 인사동 '쌈지길' 같은 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유)혜안도아(대표 김영숙)는 최근 지식산업센터인 '게토333'을 설립, 타 지식산업센터와 차별화된 컨셉으로 '예술인 마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곳은 문화예술 특화 지식산업센터로 창·제작, 전시·판매, 마케팅, 교육, 행사 등 예술 창작과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매개하고 지원하고자 기획됐으며 일반 시민들도 지역내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을 공유하고 배우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는 5월26일 문을 열 예정인 게토333은 대지면적 2만5455㎡, 연면적 1만6162㎡ 규모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구성된다. 지역 예술인의 집합체가 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으로 100여개의 작업실 중 70% 모집이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방문객들의 체험공간도 들어설 예정으로 예술인들이 작업부터 전시까지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게토333은 '음악의 거리', '목공의 거리', '공방의 거리', '순수미술인의 거리' 등 네 가지 테마로 운영된다.

음악의 거리에는 밴드앙상블과 공연·홍보·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트포(대표 정회수·art 4) 등이 들어올 예정이며 대한민국 목공예 명장으로서 공예활동을 비롯해 기술 개발 및 전파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기영락 명장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공방의 거리'에는 도자기공방, 우리공방, 수제향초공방, 천연향수공방, 프랑스자수 공방, 매듭·한복공방, 전통공예공방, 그림공방, 천연염색공방, 섬유공방, 비즈공방, 라탄공방, 미니어쳐공방, 비누공예, 단청공방 등 40여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다.

'순수 미술의 거리'에도 동·서양화·서묵화 등 다양한 작가들이 입점을 준비중에 있으며 작가들의 작업실 옆에는 공연·전시관을 별도로 구성해 입점한 작가들이 작품을 직접 전시하고 판매도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중앙광장은 향후 입점업체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영상촬영, 스튜디오 녹음실, 소극장이 있는 '음악학교', 목공교육센터, 음식 명인의 강좌, 순수미술 작가들의 원데이 클래스를 만날 수 있는 '교육센터' 등도 운영된다.

게토333 관계자는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빛가람동에 문화예술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생김으로써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문화생활과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마을 조성이 마무리되면 주말마다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술인마을' 조감도.

'한복 입기' 문화재 된다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한복은 설과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에 착용하는 우리 고유의 의복이다.

근대 산업사회 이전에는 주부들이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어 입거나 수선해 입었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면 원단을 장만해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를 각각 '설빔'·'추석빔'·'단오빔'이라 해다.

우리민족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생활관습이자 지식인 '한복 입기'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복 입기'에는 의례와 관습, 놀이 등에 맞춰 입고 향유하는 문화가 담겨 있다.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 외에도 옷고름과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 착용 순서 등을 갖추고 있다.

한복에 관한 기록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 중국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에도 나와 있다. 삼국 시대는 우리 민족 복식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이며 조선 시대에 이르러 우리 복식의 전형을 확립했다.

그러나 19세기 말 서양식 의복이 도입되면서 의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일상복은 간편함과 실용적인 서양식 의복으로 대체되고 한복의 형태는 크게 간소화됐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도 한복 입기는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복 입기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 등 관련 유물이 확인될 만큼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며 "현재에도 의례별로 갖춰 입는 근간이 유지되고 관련 지식이 전승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복 입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는 문화라는 점에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되지 않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Herstory 공모전'

광주여성가족재단, 4월24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 김미경)은 '제5회 Herstory 기획전시 공모전'을 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Herstory' 공모전은 여성주의와 성평등 인식 확산 및 가족과 함께하는 전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재단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마감은 오는 4월24일까지며 나이, 학력, 전공에 제한은 없다. 시각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성평등·여성주의·가족 관련 기획을 우대한다.

공모전의 총상금은 1200만원으로 허스토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은 상금 400만원, 우수상에게는 상금 3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최종 선정팀은 4월28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팀의 전시는 오는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HERSTORY 제2, 3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재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70-056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미디어아트 '빛'과 '평면' 회화

은암미술관, 29일~5월 4일…진시영 등 10명 참여

김일근 작 '미인이 든 가방'(美人包)

김혜선 작 'Wind wave'

평면 회화 작품과 미디어 아트,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오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기획초대전 'LIGHT & PLANE(빛과 평면)'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10명의 작가를 초대했다.

단순히 디지털 매체를 예술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간 중심의 에너지를 담아내는 진시영 작가는 '불'의 이미지를 형상화, 공동체의 힘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광주의 정신을 이야기한다.

김형숙 작가는 인체를 수학적 이론인 피보나치 수의 축소판로 규정, 기하학 연구의 작업으로 확장 및 변형한 영상작품을 출품했다.

또 김익모 작가는 추상표현주의를 통한 풍경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이며 김대진 작가는 선명한 색채와 섬세한 기법으로 꽃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김진화 작가는 공기와 식물학에 기반한 몽상을 통해 내면의 긍정의 힘과 삶의 원동력을 표현했으며, 김혜선 작가는 풍경과 회화 사이, 풍경과 해석 사이 등 경계 위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이존립 작가는 자연의 기억에 대해 채집한 결과들을 색과 구도로 표현한 작품을 출품했고 장진수 작가는 기억 속에서 찰나에 빛나고 있을 어떤 존재를 찾아내는 과정을 그리기 위해 반복적 행위를 이어가는 작업을 통해 이야기를 건넨다.

그밖에 이우현 작가는 제주 앞바다에서 우연히 수집한 '해양 자원'을 소재 삼아 우연성에 대해 실험한 작품 '무의변화'로 관람객들을 만나며 김일근 작가는 다양한 재료로 일상의 사물을 재현하며 사물의 기능을 전달하는 조각 작품을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강 작가와의 대화 : 소년이 온다'

베니스 5·18특별전 기념 이탈리아 31일 온라인 개최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가 베니스에서 개최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전을 계기로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과 공동기획한 전시연계프로그램 '한강 작가와의 대화: '소년이 온다'를 읽고'를 마련한다.

31일 오후 6시(이탈리아 현지시간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전시 뿐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과 연계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5·18민주화운동과 한국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18민주화운동 특별전 '꽃 핀 쪽으로'(to where the flowers are blooming)는 한강 작가의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을 그린 소설 '소년이 온다' 제6장에서 전시제목을 차용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2017년 9월 'Atti umani'로 이탈리아에서 번역 출간돼 이탈리아의 문학상 말라파르테 상을 수상할 만큼 현지인들의 공감대를 얻은 작품이다.

진행은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에서 한국역사, 민주화운동, 한국어 등을 강의하고 있는 쥬세피나 데 니콜라 한국학과 교수가 맡았다. 줌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참여 가능 인원은 최대 500명이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특별전 '꽃 핀 쪽으로'는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이탈리아 베니스 스파치오 베를렌디스(Spazio Berlendis) 전시장에서 4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7개월간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드영미술관 '1관 1단' 선정
'아모르 공방' 회원 모집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공모사업에 선정, 프로그램 참여 회원을 모집한다.

드영미술관의 1관 1단 커뮤니티는 환경섬유공예 '아모르 공방'으로,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물질(헌 한복)을 활용해 생활소품으로 제작하는 창작 경험을 제공하고 결과물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환경문제를 공유하는 기획이다.

회원모집은 오는 4월 5일까지며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기본적인 바느질부터 작품 제작, 전시까지 함께하게 된다. 사업 특성상 중도탈락 없이 끝까지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업료는 무료다. 문의는 062-223-6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전화주문 가맹점 모집

전남문화재단은 전남지역 문화누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화주문 가맹점을 집중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이동의 제한 등으로 가맹점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전화로 문화 관련 상품을 주문하고 원하는 곳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모집 대상은 전남도에 소재한 사업자 중 전화결제(수기결제)와 배송이 가능한 업체이며, 허용 가능한 상품을 90% 이상 취급 운영하는 곳에 한해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다.

가맹점 모집 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며, 신청 양식은 전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가맹점주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복지 사업을 통해 도내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